인생에 공짜는 없다…열정만이 밑천이다

BOOK CAFE | '열정이 없으면 꿈도 없다' 펴낸 문화기획가 정준

IMF 때 모든 것 잃고 땅끝서 찾은 희망
문화기획가 재기…하는 축제마다 성공
멘토 12인 스토리 책에 담아 열정 전파

그는 분명 중년이다. 올해 57세의 가파른 언덕을 넘고 있으니 생물학적 나이로 보면 중년의 끄트머리쯤에 서 있을 것이다. 아니다, 그는 중년이 아니다. 청년이다. 청년 못지않은 열정을 갖고 여전히 푸른 하늘에 '파란색 꿈'을 날리고 있으니 청년임에 틀림없다.

문화기획가 정준(57) 씨.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쉽지 않다. 장편소설 '나비처럼 날다' 등 소설을 몇 권이나 냈으니 소설가요, '송강 정철과 함께 걷는 관동별곡 8백리'라는 여행에세이 등을 펴냈으니 에세이스트다. 설운도의 노래 '땅끝에서'의 노랫말을 썼으니 작사가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손색없다. 또 '함평 나비축제'와 '해남 땅끝축제' 등 수많은 문화축제를 기획해 성공시켰으니 '잘 나가는' 문화기획가다.

그는 지난 12월31일, 학(鶴)의 옷을 입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2000여 명과 프리허그 퍼포먼스로 '열정 바이러스'를 나눠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엔 반기문 총장 등 그가 '사귄' 우리 시대 열정 멘토 12인의 열정스토리를 담은 '열정이 없으면 꿈도 없다(청동거울 펴냄)'라는 책을 들고 세파에 지친 사람들을 위무하고 있다. 열정으로 똘똘 뭉친 그를 만났다.

-열정 멘토 12인의 감동스토리 책을 냈는데.

"그렇다. 반기문 UN사무총장, 이어령 교수, 고 박세직 88올림픽조직위원장, 서영훈 전 적십자 총재 등 내가 직간접적으로 알고 지내온 12인들이다. 주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경제개발시기를 살아온 이들이다. 끝없는 열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개척한 원동력을 알리고 싶었다. 그 분들의 삶은 '인생에는 공짜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떻게 문화기획가로 활동하게 되었는가.

"IMF 경제환란 여파로 모든 것을 잃었다. 1999년 해남 땅끝마을에서 삶을 정리하러 갔다가 떠오르는 일출과 바다를 보며 희망을 찾았다. '그래, 나같이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땅끝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홀로 시작했다. '희망의 땅끝운동 1999'였다. 그곳에서 시도 쓰고, 학춤건강 특강도 하고 마라톤대회도 열며 땅끝마을을 IMF시대의 유명 관광지로 부상시켰다. 그게 문화기획가의 출발점이었다."

그는 그 후 기발한 아이디어로 '함평 나비축제'를 기획해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시켜 문화기획가로 명성을 떨쳤다. 소설 '토지'의 무대인 하동 '태백산맥'의 무대인 벌교, '난중일기'의 무대인 여수를 도는 남도문학기행열차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또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을 스토리텔링해 '관동별곡 8백리 길'을 만들어 강원도 고성군과 함께 '관동별곡 걷기 축제'를 성공시키는 등 축제의 미다스 손으로 불린다. 그의 성공 뒤엔 가슴 아픈 '과거'를 극복한 열정이 있었다.

-성장기 시절 가정환경이 어려웠다고 들었다. 어떻게 극복했나.

"집안이 가난해 중학교를 중퇴했다. 아버지의 돌연사로 졸지에 소년가장이 돼 어린 동생들과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를 부양해야만 했다. 공사장 인부, 룸살롱 야간 운전수, 복덕방 직원, 지하철 행상, 포장마차 등 안 해본 게 없다. 고학으로 고교 졸업장을 땄고, 문학을 하고 싶어 방송통신대 국문과에 입학했지만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했던 여성과의 결혼과 이별도 경험했다. 그 후 지하실 단칸방을 전전하며 두 아들을 키웠다. 삶의 불운과 불행이 내 발목을 붙잡았지만 집념과 열정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건강운동법인 '학춤'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정준 씨는 '함평 나비축제' '해남 땅끝축제' 등 굵직한 문화축제를 기획해 성공시킨 문화기획가다. 그는 요즘 "열정이 없으면 꿈도 없다"며 베이비붐 세대와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운동에 열정을 쏟고 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beanjjun

-요즘 새로운 문화운동을 기획한다고 들었는데.

"베이비세대들의 경험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문화의 가교'를 만들고 있다. 또 프리허그 10주년인 올해엔 경기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응원'인 학허그를 진행하고 있다. 내 강점인 열정으로 지구촌을 좀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문화운동도 기획하고 있다."

-취업난에, 경제난에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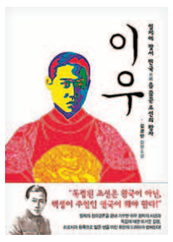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도 우리 선배들은 산업화의 기틀을 다졌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많은 역경 속에서도 무역입국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뛰어난 IT실력과 한류문화로 무장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뜨거운 열정과 무한한 상상력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 열정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우리 함께 열정의 불을 밝히자."

그의 삶은 지칠 줄 모르는 기관차다. 이런 열정은 지구촌에도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사)세계걷기운동본부를 설립해 2007년 직립보행을 의미하는 11월11일을 '세계걷기의 날'로 제정 선포했다. 그 결과 2010년 정부로부터 '보행자의 날'을 제정하게끔 했다. 또 2009년엔 반기문 총장과 논의해 걷기와 자전거 타기 도시 대표 모임인 '세계 와이크시티 연맹'을 발족시키기도 했다. 다음에 또 무슨 '폭탄'이 터질지 궁금하다. 그는 열정이 있는 한 '행복한 사고'를 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컬처박스

대한민국을 꿈꾼 조선의 왕자



●**이우(김경민 지음 | 중앙위즈 펴냄)**=이우를 기억하는가. 대한제국 고종의 다섯 째 아들 의친왕 이강의 차남이다.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의 장손 이준용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양자로 입적돼 운현궁의 4대 종주가 됐던 그 사람? 맞다. 그는 일본의 볼모로 끌려가 일본 육사와 육군대학을 졸업한 뒤 군에 입대해 히로시마 원폭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나이 33세였다. 소설 '이우'는 작가 김경민이 역사고증과 다양한 인물취재를 거쳐 '비운의 왕자' 이우의 삶을 그린 역사소설이다. 탈고에 2년 여 걸렸단다. 역사적 팩트와 작가의 상상력이 상승작용을 해 힘 있고 촘촘한 스토리로 탄생했다. 섬세하고 속도감 있는 문체가 돋보인다. 이우는 조선 왕자로서 기개 높게 살았고, '독립된 조선은 왕국이 아니라 민국(民國)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만큼 열린 사고를 가졌다. 소설 '이우'에서는 사랑하는 조선의 여인을 두고 고뇌하는 모습과 감시자였지만 인간 이우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관 요시나리의 갈등 등을 생동감 있게 그렸다. 이우는 지인들에게 "일본의 패전은 기정사실이며 조선이 독립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도 가만있지 않을 테니 해방 후의 뒷수습이 큰 문제다"라고 걱정하면서 일본 군복을 빨리 벗고 싶다고 했단다. 혜안이 놀랍지 않은가. 연제호 기자

양형모의 아이 러브 스테이지

소박하지만 풍부한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무장한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사진제공 | 쇼노트

소박한 무대에 맛깔나는 연기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의 힘

이종혁·마이클 리·김동완 주연…26일까지 서울 공연

허공에서 12.4m짜리 거대한 모형 드래곤이 포효하고, 금발미녀가 공중에서 눈부시게 하강하는 '위키드', 화려무쌍한 LED 영상과 코앞에서 보면서도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매직을 보여주는 '고스트'. 세계 뮤지컬계가 그 동안 쌓아올린 기술적 진보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듯한 이런 작품들에 비해 '벽을 뚫는 남자'(이하 벽뚫남)는 싱거울 정도로 아날로그적이다.

무대는 아담하고 소박하다. 조명도 특별한 색깔이나 분위기를 강조하지 않는다. 음악은 상다리 부러지는 한정식이 아니라 좀 푸짐한 백반에 가까운 느낌이다. 제목처럼 주인공은 틈나는 대로 벽을 뚫고 지나다니지만 특수효과라고 하기엔 낯이 간지러울 정도다. '고스트'에서 샘이 보여주는 최첨단 벽 통과하기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이 작품을 사랑한다. 현란한 무대장치와 볼륨감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각별함'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브로드웨이와는 확실히 다른 프랑스 뮤지컬만의 감성도 한몫했다.

'벽뚫남'은 어느 날 갑자기 벽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우체국 직원 듀티율의 이야기를 유쾌발랄하면서도 애틋하게 그렸다. '벽뚫남' 음악의 가장 큰 미덕은 친숙함이다. 처음 작품을 보는 사람도 흥얼흥얼 배우의 노래와 반주를 따라할 수 있을 정도다. 비슷한 멜로디가 또 나오고, 또 나오지만 결코 질리지 않는다. 이 음악은 미셸 르그랑의 작품이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라고? 당연하다. '쉘부르의 우산', 영화 '007시리즈' 등으로 세 번의 아카데미 영화음악상, 다섯 번의 그래미상을 받은 거장이니까.

소박한 밥상이지만 맛깔스럽게 늘어놓고 수저를 권하는 이들은 배우다. '벽뚫남' 묘미 중 하나는 11명의 배우가 등장해 23명의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점이다. 주인공 듀티율은 2012년에도 듀티율을 맡았던 이종혁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미스사이공' 등 브로드웨이와 한국을 부지런히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리, 그리고 그룹 신화의 멤버 김동완이 맡았다.

'벽뚫남'에서 가장 큰 웃음을 주며 관객에게 사랑받는 알코올중독 의사 듀블은 고창석과 임철형이다. 배우 겸 연출가로 2012년 '벽뚫남'에서 연출을 맡았던 임철형은 이번 공연에서는 배우로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 뮤지컬사의 전설 중 한 명인 이정화가 '매춘부' 역으로 출연한 것은 상당히 놀랍다.

1월 26일까지 서울 홍익대대학로아트센터에서 공연한 뒤 인천, 대전, 전주 등 지방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순회공연에 들어간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